

NCT, SM엔터 30년 시스템... '문화기술' 파괴력 선보일까?

"NCT는 SM엔터테인먼트의 시스템 자체입니다. 30년 넘게 축적한 노하우와 음악 기획, 제작이 모두 녹아있어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브랜드이고 플랫폼이죠. 무한히 진화하고 확장하는 모델이다. 문화 기술 3단계와 NCT가 맞닿아있습니다."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는 지난날 25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0 서울국제뮤직페어'(뮤콘)의 기조연설 '컬처 테크놀로지, IP 산업 그리고 언택트'에서 그룹 'NCT'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SM이 야심차게 구축한 연합 그룹 NCT가 12일 발매하는 정규 2집 파트1인 '엔시티 - 더 세컨드 앨범 레조넌스 파트1(NCT - The 2nd Album RESONANCE Pt.1)'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 대표 말처럼 브랜드이자 플랫폼이 된 NCT라는 커다란 울타리에는 무려 23명이 속해 있다. 태일, 자니, 태용, 유타, 도영, 텐, 재현, 원원, 마크, 런원, 제노, 해찬, 재민, 천라, 지성, 루카스, 정우, 쿤, 사오쥘, 양양, 헨드리, 쇼타로, 성찬 등이다.

이들은 SM 내에서 NCT라는 이름을 주축으로 내걸고 다양한 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태용과 마크는 NCT127 멤버이자 SM 어벤저스 프로젝트 그룹 '슈퍼엠' 멤버이기도 하다.

이번 NCT 활동에는 서울의 경도 '127'을 팀 이름으로 포함시킨 NCT127 멤버들을 비롯해 10대 위주의 NCT 드림(DREAM), SM 중국그룹 '웨이브(WayV)' 등이 나선다.

또 멤버들의 연합팀인 'NCT U'도 활동한다.

NCT는 지난날 미국 빌보드가 트위터의 트렌드 보고서 '트위터 프롬 홈(Twitter From Home)'을 인용한 보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미국 내 트위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가수 중 6위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멤버 영입 자유·수 제한없이

정규 2집 Pt.1 발매...NCT 세계관 본격적 녹여낸 앨범

아이돌 최초 '멀티버스(Multiverse) 리얼리티' 표방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1위를 차지한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이어 K팝 그룹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미국 래퍼 카네이 웨스트가 2위, 미국 팝스타 비욘세가 3위를 차지했다.

◇NCT 시스템, 어려워도 알면 빠져든다

사실 K팝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더라도, NCT 시스템은 다소 난해할 수 있다. 하지만 차근차근 파고 들어가면 확장성에 흥미로워할 것이다.

SM은 1989년 이수만 총과 프로듀서가 세운 SM기획이 모태다 1995년 'SM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정식 출범했다.

엔터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기업을 꿈꾸는 SM에서 NCT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듀서의 관심과 성향이 반영된 팀이다.

서울대 출신인 이 프로듀서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노스리지 대학원 컴퓨터공학 석사를 밟는 등 분야에 일찌감치 관심이 많았다.

SM이 지난 2016년 야심차게 선보인 NCT 프로젝트는 그의 큰 그림을 가능할 수 있는 하나의 퍼즐이 될 수 있다.

'네오 컬처 테크놀로지(Neo Culture Technology)'의 머리글자 모음인 이 팀의 주요 포인트는 멤버의 영입이 자유롭고 그 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기술로 탄생된 만큼 개방성과 확장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지금까지 NCT 127, NCT U, NCT 드림, NCT 2018 등으로 분화됐다. 물리적인 국경의 이동이 제한된 코로나19 시대에 대리 만족감을 준다.

또 팀의 멤버들의 숫자가 많으면 팬들이 그만큼 다양하게 감정 이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진다.

팬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NCT 브랜드'가 확고해진다. SM 내 다양한 가수들이 이 팀 이름을 기반 삼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음악 자체에 힘이 실린다. 아티스트와 팬 모두 NCT라는 브랜드 안에서 음악적으로 다양하게 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아티스트와 팬이 하나가 되며 음악의 힘으로 서로를 공감하고 치유하고, 서로의 진동을 확장해 공명한다는 세계관이 NCT 자체"라고 강조했다.

◇NCT 세계관 녹여낸 정규 2집 Pt.1

이번 앨범은 NCT의 세계관을 본격적으로 녹여내는 앨범이다.

타이틀 곡 '메이크 어 위시(Make A Wish)'(Birthday Song)는 휘파람 리프가 매력적인 힙합 비트 기반의 팝 댄스 곡으로, 언제나 서로가 연결돼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소원을 빌어보자는 메시지를 노랫말에 담았다.

이번 앨범은 NCT가 2018년 내세운 공감(EMPATHY)에서 나아가 '공명'(RESONANCE)을 통해 음악으로 교감하고 강력한 시너지와 파괴력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SM은 "꿈"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는 NCT의 세계관을 반영한 유기적인 스토리텔링이 더해졌다"고 전했다.

앨범에는 다채로운 음악도 실렸다. '미스핏(Misfit)'은 90년대 초 힙합 음악을 연상시키는 팝 스타일의 곡이다.

가사에는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현대 사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표현했다. 자니, 태용, 마크, 헨드리, 제노, 양양, 성찬이 참여해 에너지 넘치는 보컬과 파워풀한 래퍼로 매력을 더했다.

더불어 태일, 자니, 유타, 쿤, 재현, 정우, 사오쥘, 천라가 참여한 '댄싱 인 더 레인(Dancing In The Rain)'은 재지(Jazzy)한 요소가 가미된 일렉 기타 선율이 따뜻한 건반과 그루비한 드럼사운드에 어우러진 R&B 힙합 곡이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라면 비를 맞아도 행복한 마음을 가사에 담아 설레는 감정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켄지(KENZIE), 문사인(Moonshine), 스테레오타입스(Stereotypes), 하비 메이슨 주니어(Harvey Mason Jr.), 마이크 데일리(Mike Daley), 밌지션(minGtion) 등 국내외 뮤지션들이 함께 작업해 완성도를 높였다. 멤버 재현도 '댄싱 인 더 레인' 작사에 참여했다.

NCT는 앨범 발매 당일 오후 5시부터 네이버 V 라이브의 NCT 채널을 통해 '엔시티's '메이크 어 위시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진행한다.

'메이크 어 위시'에 참여한 태용, 도영, 재현, 루카스, 사오쥘, 재민, 쇼타로가 출연한다.

또 SM은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과 손잡고 NCT 23인 멤버가 모두 참여하는 단독 리얼리티 'NCT 월드(World) 2.0'도 론칭한다.

아이돌 최초 멀티버스(Multiverse) 리얼리티를 표방, 여러 개의 다른 시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NCT의 매력을 담아내겠다고 예고했다.

썩쓰리·환불원정대 음원수익 전액 기부...“선한 영향력”

‘놀면 뭐하니’ 제작진 “국민들께 힘 되고자 기획”



MBC '놀면 뭐하니' 제작진이 썩쓰리와 환불원정대의 음원수익과 앨범 판매 수익, 환불원정대의 음원수익을 올 연말 전액 기부키로 했다.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10일 "썩쓰리와 환불원정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큰

변화에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작으나마 힘이 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작진은 "언제나 진행된 프로젝트 결과물에서 생기는 수익을 '기부'라는 방식으로 사회 곳곳으로 환원시켜왔다"며 "이번 음원

수익 전액 기부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인기 예능의 선한 영향력과 공익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시키고 선한 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놀면 뭐하니'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설 자리를 잃었던 공연 문화 예술계 실상을 알리고 그들의 무대를 소개해 왔다.

'방구석 콘서트' 기획은 온택트 콘서트 트렌드를 이끌었고 유두래곤(유재석), 린다 G(이효리), 비룡(비) 등 썩쓰리의 여류 시즌 활동은 침체됐던 가요계 여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을 받는다.

'놀면 뭐하니'는 최근 신박기획 지미 유(유재석)가 기획한 리더 천옥(이효리)와 만옥(엄정화), 은비(제시), 실비(화사)로 결성된 그룹 '환불원정대'의 활동을 방영 중이다.

이날 오후 6시에는 환불원정대의 첫 결과물이자 첫 활동곡 '돈 터치 미(Don't Touch Me)'의 음원이 공개됐다.

이 곡은 지미 유가 국내 최고 히트곡 제조기 블랙아이드필승(최규성·라도)과 전군의 협력을 이뤄낸 탄생시킨 곡이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개성은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이며 우리는 개성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놀면 뭐하니'는 올 한 해 '부 캐리터' 신드롬을 일으켰다.

고정 출연자 유재석은 트로트 가수 유산슬, 썩쓰리의 유두래곤 등에 이어 환불원정대 기획자 지미 유로도 활동하고 있다.

슈퍼엠, 힐링 퍼포먼스...‘베터 데이즈’

K팝 아티스트로서 유일 참여

SM엔터테인먼트의 어벤저스 그룹 '슈퍼엠(SuperM)'이 세계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힐링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11일 SM에 따르면, 슈퍼엠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인드(LinkedIn), 틱톡, 트위치(Twitch)를 통해 생중계된 세계보건기구(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주최 온라인 이벤트 '더 빅 이벤트 포 멘탈 헬스(The Big Event for Mental Health)'에 K팝 아티스트로서 유일하게 참여했다.

이날 이벤트는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에 대해 널리 알리고 모두에게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두려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이날 슈퍼엠은 "모두에게 좋은 날이 오길 바란다"며 최근 발표한 정규 1집 '슈퍼 원'의 수록곡 중 따뜻한 보컬이 돋보이는 '베터 데이즈(Better Days)'를 선보여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었다.

SM은 "특히 슈퍼엠은 이번 정규 앨범에 '우리 모두는 특별한(Super) 존재로서 각자(One)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된(One) 힘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아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던 만큼, 이번 행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힐링과 위로를 선사했다"고 전했다.

여수 출신 가수 박미란 '여수항아' 신곡 데뷔



지난 84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동상을 수상한 박미란이 '여수항아' 신곡으로 뒤늦게 가요계에 데뷔했다.

대학가요제에서 동상을 수상한 실력파를 알아본 작곡가 장경수씨가 쓴 노랫말에 7080 포크음악을 풍미한 '높은음자리'로 활동했던 김장수 작곡가가 곡을 붙였다.

가수 박미란이 9월에 신곡 '여수항아'의 '사랑불', '내 남자가' 동시에 발표하면서

성인가요계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수항아는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요. 노래가 굽이굽이 자신의 인생 같다"는 가수 박미란은 그동안 영취산 진달래축제 그리고 여자인 갯벌노을 축제 등에 초대되며 각종 지역 문화행사와 방송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여수에서 원앙어선의 기관장을 지내고 리듬감이 뛰어난 아버지와 목청 좋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박미란은 세 살 때부터 노래를 불렀고 새타령 등 어떤 노래든 한 번 들으면 다 따라 부를 정도로 끼를 타고난 트로트 신동이었다.

'여수항아'는 그녀의 아름다운 고향 여수항을 잘 표현해 내는 '찌미 트로트' 곡으로, 아름다운 '여수항아' 품고 있는 명승지들과 그 사연들이 고스란히 담겨 고향 여수를 홍보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엑소 첸, 1년 만에 새 싱글...15일 '안녕'

지난해 10월 발매한 두 번째 미니앨범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후 처음

그룹 '엑소' 첸(CHEN·김중대)이 약 1년 만에 솔로 싱글을 내놓는다.

9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첸은 오는 15일 오후 6시 플로, 멜론, 지니, 아이튠즈,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QQ뮤직, 쿠거우

뮤직, 쿠위뮤직 등에서 새 싱글 '안녕'(Hello)을 발표한다.

첸의 솔로곡은 지난해 10월 발매한 두 번째 미니앨범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후 처음이다. 그간 힙합듀오 '다이나믹듀오'가 올해 초 발

표한 '혼자의 피쳐링,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SBS TV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OST '너의 달빛' 등 다른 솔로 활동은 해왔다.

앞서 첸은 지난해 4월 첫 번째 미니앨범 '사월, 그리고 꽃'을 발표하며, 솔로로서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엑소와 엑소의 유닛 '엑소-첸백시' 멤버로 활약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드라마 OST, 다른 가수와 콜라베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뉴스스